

# Landscape Review

**Vol.11** 조경정보

**Contents**

**녹색 인프라**

02 녹색 인프라 구축 전략과 과제

06 복지로서의 조경과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10 Issues & News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 인프라 구축 전국순회 심포지엄

# 녹색 인프라 구축 전략과 과제

양홍모 Yang,Hong Mo ·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 1) 녹색 인프라의 의미

인프라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줄인 말로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도시 인프라를 크게 도로, 철도, 교량 등 회색 인프라, 병원, 학교, 우체국, 소방서 등 사회 인프라, 그리고 공원, 녹지, 하천 등 녹색 인프라로 구분한다. 이들 인프라가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녹색 인프라 구성요소 중에서 하천, 하천변 녹지, 습지를 분리하여 청색 인프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녹색 인프라 기본개념은 공원과 녹지가 도시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회색 및 사회 인프라처럼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는 필수시설로 인식하는데 있다.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근린지역·지구·도시·권역 규모에서 다양한 공원, 녹지, 하천변 녹지, 하천, 그린 스트리트, 습지, 농업지역, 그린벨트를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녹색길(greenway)로 이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 공간들(hubs)을 보전하고 확보하여 이들을 서로 연결(link)하는 것을 강조한다. 도시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녹색 인프라는 공원이며 이들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성해야하고, 특히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공원연결로(parkway)의 도입이 중요하다.

## 2) 녹색 인프라의 역할과 혜택

녹색 인프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가? 첫째, 시민 누구나 주거 공간에 가깝게 위치한 녹색 인프라에 접근하여 산책과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며, 둘째, 도시 생태환경의 기능을 회복시켜 홍수 등 자연 재해를 완화시키며, 셋째,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기후온난화를 완화시키며, 탄소발자국지수와 생태발자국지수를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 넷째, 건전한 도시 성장의 틀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생태감 넘치는 도시경관 창출로 관광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며, 다섯째, 삶의 질과 환경 복지를 개선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녹색 인프라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누릴 시민 환경 복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시민 누구나 도시 공원과 녹지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

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녹색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은 회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수 십 년 지속되면서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의 부조화가 누적되어 환경 훼손과 오염, 종 다양성 저하, 온난화, 홍수 등 각종 도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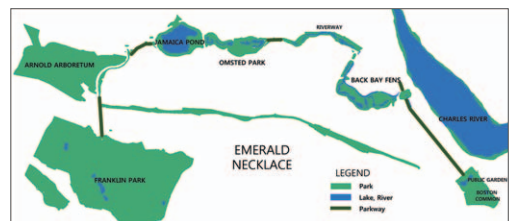
회색 인프라가 녹색 인프라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회색 인프라는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감소하지만, 녹색 인프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 150년 전 움스테드(Olmsted) 등 조경 선각자들의 리더십과 사회·정치적 합의를 통해 조성된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3.4km)의 현재 가치는 5,300억 달러에 이르며,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뉴욕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 3) 녹색 인프라 흐름과 선진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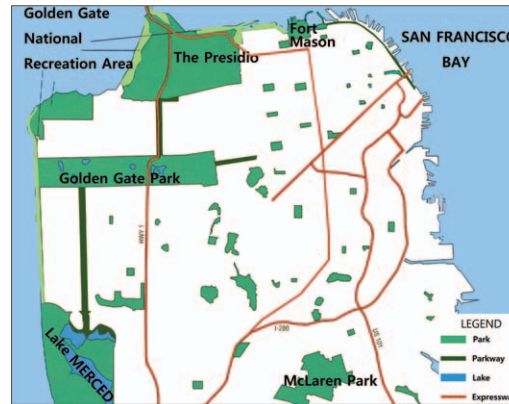
산업혁명기로부터 1970년대까지는 시민 건강, 레크리에이션 공간제공, 도시 쾌적성을 위해 도시공원의 도입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1980년대에는 도시성장의 합리적 틀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픈스페이스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림 1〉 보스턴 공원 체계, 1894



〈그림 2〉 미국 보스턴 에머랄드 넥클레이스(Emerald Necklace), 2010



〈그림 3〉 미국 샌프란시스코 녹색 인프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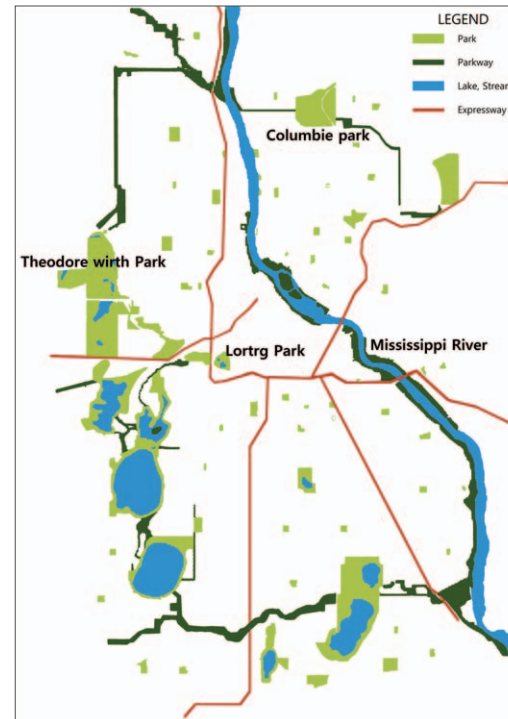


〈그림 4〉 주택가 골든게이트파크(Golden Gate Park), 프레시디오(Presidio)공원, 공원연결로 모습

1990년대에는 오픈스페이스를 보완하는 녹색길 개념이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녹색 인프라 개념이 등장하였다.

미국은 1999년 클린턴 정부 때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에서 녹색 인프라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5대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하여 녹색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 '도시녹지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녹색 인프라 체계인 '물과 녹'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8세기 서구 산업혁명기에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과밀화 현상과 더불어 주택난, 대기 및 수질 오염, 상하수도 부족으로 인한 도시위생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현대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의 대부



〈그림 5〉 미국 미니애폴리스 녹색 인프라 체계

분은 산업혁명에 원인이 있다. 산업혁명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운동으로 영국의 전원도시(Garden City)와 미국의 도시미(City Beautiful) 운동을 들 수 있다. 전원도시는 과밀한 도시인구를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분산하여 자급자족의 도시를 조성하자는 주장이며 전원도시의 외곽은 넓은 농지로 둘러싸는 개념이다. 도시미운동은 산업혁명기 공장매연으로 그을리고 어두운 회색의 도시를 흰색의 도시로 바꾸자는 운동으로 웅장한 고전 건물, 광장, 가로수로 덮인 대형가로, 오픈스페이스를 도입하지는 운동이다. 전원도시와 도시미 운동이후 현대도시의 확산과 팽창을 제어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설계 운동이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다. 도시 계획 및 설계, 건축, 조경, 교통,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신도시주의(new urbanism, 1993), 스마트성장(smart growth, 1997), 경관도시주의(landscape urbanism, 1997), 녹색도시(green urbanism, 2000), 생태도시주의(ecological urbanism, 2009)가 차례로 등장한다.

신도시주의는 복합 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 유희지 또는 나대지 개발, 보행 및 자전거 친화적 연결 가로망 구축, 쾌적한 공원 및 보전녹지 조성을 강조한다. 스마트 성장은 집적 성장, 혼합 토지이용, 자동차중심의 교통보다는 전철을 기반을 둔 대중교통지향,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생태감있는 지역사회 개발과 함께, 오픈스페

이스, 농업지역, 자연경관,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전하지는 운동이다. 스마트 성장에는 스마트보전(smart conservation)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보전은 녹지회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고, 녹색공간을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단일목적보다는 다목적에 지향한다.

녹색도시주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태발자국지수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경관도시주의는 경관을 도시설계의 기본 블록으로 보며, 경관을 미적 쾌적성보다는 기능과 성능의 관점에서 다루고 형태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남겨진 공터, 미개발지의 설계에 관심을 갖는다. 생태도시주의는 탄소발자국지수를 줄일 수 있는 생태적 설계 방안, 녹색기술, 생산적 도시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이들 도시설계운동에는 공원녹지와 녹색 인프라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스마트보전은 미국 도시정책에 녹색 인프라 구축이 반영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1〉은 1894년 움스테드가 제안한 미국 보스턴의 코몬(Common)에서 프랭크린 파크(Franklin Park)까지 공원연결로로 연결하지는 공원체계의 모습이다. 〈그림 2〉는 움스테드가 제안한 공원시스템이 유지된 모습으로 현재는 에머랄드 넥클레이스(Emerald Necklace)라고 부르고 있으며, 녹색 인프라 역할과 기능은 물론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그림 3〉은 공원녹지를 중심으로한 샌프란시스코시의 녹색 인프라 체계를 보여 준다. 〈그림 4〉의 아래 부분은 골든게이트 파크(Golden Gate Park)이며 위쪽은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의 모습이며, 이들 두 공원을 연결하는 공원연결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5〉는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의 녹색 인프라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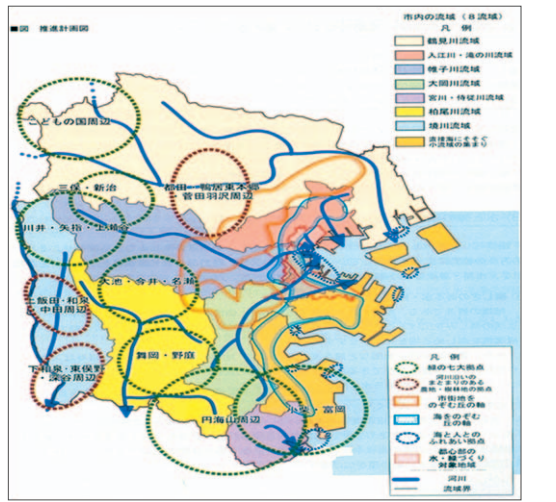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시카고 녹색 인프라 체계

계를 보여주며, 〈그림 6〉은 미국 시카고시의 녹색인프라 체계를 보여준다. 〈그림 7〉은 일본 요코하마시의 물과 녹의 기본계획도이다. 녹색 인프라를 녹색 인프라와 청색 인프라로 구분하여 계획한 사례이며, 녹색 인프라를 녹색 매트릭스로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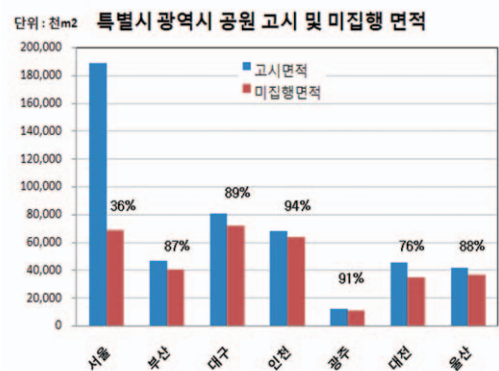
산업혁명기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 즉 노동자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산책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 공원(public park)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시민복지를 위한 공공 공원의 효시는 1847년 조성된 영국의 버킨헤드 파크(Birkenhead Park)이다. 버킨헤드시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노력으로 의회에서 지원법안이 통과되어 공원이 조성되었다. 미국의 공공 공원 효시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다. 미국의 산업혁명기에 움스테드는 시민의 건강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공공 공원의 필요성을 시민과 언론, 정치인에게 호소하고 설득하였으며, 1850년 주지사선거의 이슈가 되어 1857년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경가를 포함한 선각자들이 공공 공원의 중요성을 시민과 언론에 호소하고 사회·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 조성되었다.

## 4) 국내 녹색 인프라 현황과 구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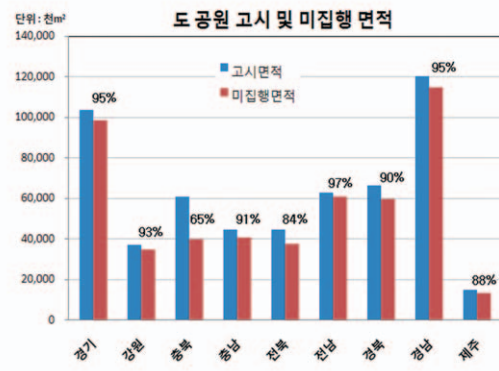
우리의 녹색 인프라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공원녹지 체계 혹은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경우는 거의 없다. 녹색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녹색 인프라 구축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7〉 일본 요코하마시의 물과 녹의 기본계획 (자료: 横浜市, 2006, 横浜市水と緑の基本計画, p.46)



〈그림 9〉 전국 광역시(특별시) 공원 고시면적 및 미집행면적



〈그림 10〉 전국 도 공원 고시면적 및 미집행면적



〈그림 11〉 전국 광역시·도 공원 미집행 면적 비율

현행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서는,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이 2020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공원이어서 이 규정을 공원일몰제라고도 부른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전국 광역시와 도의 공원 고시면적과 미집행면적을 보여준다. 2010년 기준, 지자체가 고시한 전국의 공원 면적은 1,043km<sup>2</sup>에 달하며 이중 미집행 면적이 823km<sup>2</sup>로 80%에 달하는데, 조성은 커녕 토지 매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그림11 참조). 이를 전부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5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되어, 지자체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공원 일몰제에 대한 합리적 대처 방안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공원일몰제에 대처하기위해 전국 시·도 공원녹지 협의회가 2011년 3월에 발족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협의회 첫 번째 워크숍에서 필자가 공원일몰제 대처방안을 발표하였고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부족한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대규모 국가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1972년 관련법인 "도시공원법"

을 개정하여 17개 대형 국영공원을 정부가 조성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용산국가공원이 최초 정부투자로 조성될 계획이지만, 광범위한 국토 규모의 시각에서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을 일부 확보하고,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에서 고시한 공원조차도 토지매입 비용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현상이 도래하고 있다. 회색 및 사회 인프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녹색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시민들의 복지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세대는 물론 100년 후 후손들이 사용할 공원조성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림 8〉은 2000년 서울시의 공원녹지 현황도이다.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공원연결로 혹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녹색길의 개념이 없다. 최근 용산국가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산공원, 남산,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구상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의 녹색 인프라 체계는 아니더라도 지구단위에서 녹색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내 최초의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국가공원 조성을 포함한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전문가 특히 조정 전문가들의 리더십, 둘째, 사회·정치적 합의, 셋째,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조정 선각자인 클리브랜드(Cleveland, 1883)는 "100년 후 도시인구가 100만 명에 달할 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정도의 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모든 부로 잃어버린 기회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복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미국

## Information 유사관련용어정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1997년 찰스 왈드하임(Charles Waldheim)의 선언에서 비롯되었으며 경관(Landscape)을 도시의 인프라 스트럭처로 이해할 것을 제안 하였다. 기존의 개념처럼 경관을 미술사나 환경과학의 시각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달리, 동시대의 도시 발전과 공공의 작품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다. 도시를 경관생태학의 경관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진화하는 실체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터, 미개발지를 주로 다루며 형태보다 과정, 변화를 위한 설계를 중시한다. 이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라발레트공원 현상공모를 비롯한 유럽의 80년, 90년대 주요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뉴 어바니즘의 계열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콜로지컬 어바니즘(Ecological Urbanism)**  
200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학교의 커퍼런스를 통해 소개된 개념으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도시의 스케일 전체를 포괄함과 동시에 그 원리를 자연에서 배우며 조화시키자는 것이다. 생태의 시스템으로부터 방법을 배우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다 기능성의 중요함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연의 특성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란 꼭 미적으로 아름답거나 혁신적인 디자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의 요소들을 연결시켜주는 디자인이라고 한다. 또한 복잡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에 대한 배타성을 버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건축가, 도시계획가, 조경가, 공학자, 생물학자 등)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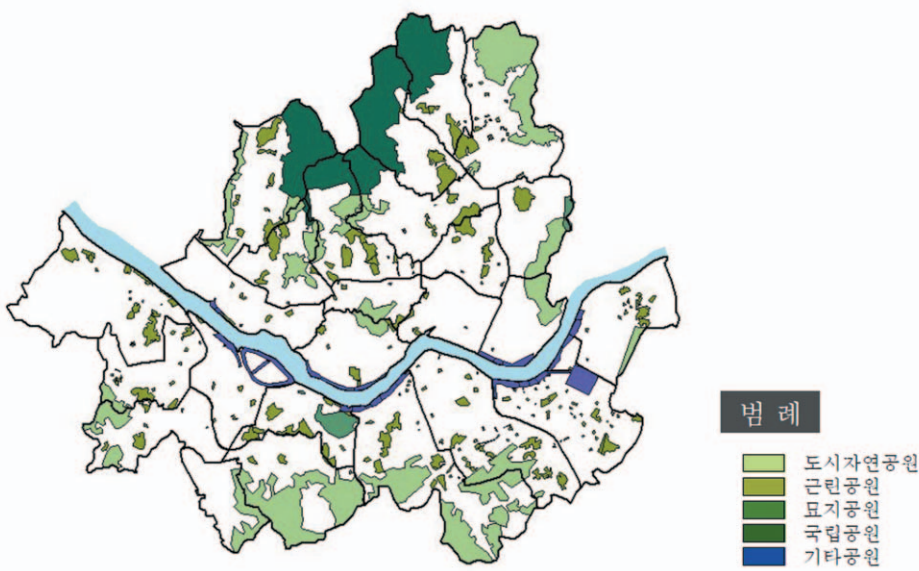
**그린 어바니즘(Green Urbanism)**  
그린 어바니즘은 도시 혹은 일정 지역의 성장 순환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물, 재료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모든 노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경우 건설 재료의 추출, 제작과 운송에 드는 에너지, 건설, 그리고 건물이 수명을 다했을 때의 재사용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 자체 체계를 갖는 안정성, 그리고 기후 변화, 기온 부족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 역량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린 어바니즘은 조정, 공학, 도시계획, 건축, 교통,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다양한 학제간의 공동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사토야마 이니시예티브스(Satoyama Initiatives)**  
사토야마는 리산(里山)으로 마을에서 가깝고, 생활과 밀접한 낮은 산으로 우리 말로는 마을 숲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땅과 물 그리고 다른 자연 자원의 훼손없이 지역사회 위한 먹거리와 연료를 포함한 부산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일본의 농업과 자연자원 관리를 하는 다기능적 토지사용체계를 말한

다. 초기에는 생활과 숲을 연계해 관리하는 것을 사토야마라고 말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산림 뿐 아니라 논, 밭, 초원, 시냇, 언덕 등 인간과 어우러진 모든 자연을 사토야마로 부르게 되었으며 사토야마 이니시예티브스는 이러한 자연이 분포하는 원생자연과 도시의 중간지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사토야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위하여 일본의 환경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진흥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코 타운(Eco-town)**  
2007년 영국의 지역사회부 (The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발표한 이코 타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영국에 10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유형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이코 타운은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달성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2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 생활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자체 생산과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도시로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을 30% 수준 공급해야 한다. 2008년에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영국 정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11개 지역의 사업 제안서가 1차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09년 4개의 지역(Whitehill-Bordon, North-West Bicester, Rackheath, St Austell)이 이코 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정책서로 이코 타운 기준을 발간하였다. 기준으로 탄소제로(Zero carbon); 기후변화 대응(Climate change adaptation); 주택(Homes); 고용(Employment); 교통(Transport); 건강한 생활양식(Healthy lifestyle); 지역 서비스(Local services); 그린 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 경관과 역사환경(Landscape and historic environment);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물(Water); 홍수위험관리(Flood risk management); 쓰레기(Waste); 마스터 플래닝(Master planning); 변화(Transition); 지역사회와 거버넌스(Community and governance)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부지의 40%를 녹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중 50%는 공공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단지 외 부와의 연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요구되는 소규모 도시개발(5,000-15,000세대)의 최신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 웨이(Greenway)**  
휴양 혹은 환경보존을 위해 남겨놓은 강을 따라서 혹은 도시 중심을 연결하는 녹지 통로로 공원을, 자연지역을 연결하는 녹지체계로서 주로 도시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과 연결의 수단이었던 축의 개념에서 생태통로, 건강, 역사문화 자원 보호, 사회적 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그림 8〉 서울시 공원녹지 현황, 2000

(자료: [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sub3\\_1/4\\_image\\_book.pdf](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sub3_1/4_image_book.pdf), p.33)

# 복지로서의 조경과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윤상준 Yoon, Sang Jun · (재)이름지기 선임연구위원

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생활에 일대 변혁을 가져 왔다. 기계화·자동화로 인하여 생활이 발달하게 된 반면 이에 따른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은 점차 파괴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여파는 점차 확대되어 인간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사회 구성 계층 간의 빈부 격차 또한 심화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중의 하나인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점차 격차가 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골보다는 도시로 갈수록 심화되었다. 산업혁명의 100여년 경험 뒤에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각성하고 해결하고자하는 목소리가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예술 공예운동과 환경 및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등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사회보장과 복지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의 목소리 또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성은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분야가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개인 중심적인 정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조경을 통한 공공을 위한 공간 즉, 수목원(Arboretum), 공도(Public Walk), 공원(Public Park)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중요성은 세계에 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국시절, 서재필과 유길준에 의해서 공공공원의 개념 및 필요성이 일찍이 소개되고 강조되었으며, 인천의 자유공원, 독립공원 그리고 탐골 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광복이후,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었다. 사람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거대한 과학기술 앞에서 비인간적인 스트레스로 가득한 생활을 감내하고 견뎌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주거 형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 주택으로 빠르게 이행하며 자연 환경의 보전, 사람들의 휴식공간, 여가와 만남의 기능을 가지는 개인 공간 및 공공 공간에 대한 사회의 고려는 부족해왔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슬로건과 함께 녹지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를 겨냥한 복지정책 경쟁이 가열되며 양극화·고령화 여파로 국민사이에서도 복지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가 이미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녹색복지', 혹은 '생태복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는 간단히 말해서 행복한 삶을 뜻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보면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정책의 총칭이다. 물론 좁은 뜻으로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제공의 방법을 통한 여러 활동의 총체적 의미와 함께 생활 곤궁을 겪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의 경제적 도움이라는 뜻도 있다. 사실 경제 13위인 우리나라가 '종합복지지수'에서 OECD 30개국 중 26위를 기록하고 있고, '복지충족지수'가 28위, 국민이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행복지수'가 29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더욱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복지정책은 건보 급여비, 기초생활 수급비 등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일차적인 정책에 치중하다 보니 전반적인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인 정책은 물론 필요하다. 이것의 방향을 바꾸거나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 자연 환경의 정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미국시애틀



수직정원

관계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가 절실하다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녹지율이 높다는 서울을 보더라도 주말과 휴일 한강 고수부지 접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경험하고 있고 대표적 공원 내에서는 자연을 느끼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보다는 인파에 시달려야만 한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파발,사당 등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지역은 등산객으로 주말에 장사진을 이룬다. 서울 인근 청계산은 줄을 지어 등산

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한국은 유엔의 생태복지 조사대상 180개 국가운데 162위로 꼴지 그룹에 속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생태복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복지' 서비스로서 녹지 복지, 생태복지를 환경적 복지로 분리하여 인식하여서는

영국 런던 벽면녹화

독일 트렘녹화

영국 글래스톤버리 외곽 녹지경관



도로조경

안 되고 사회적 복지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정책이 아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 및 구축은 이러한 면에서 진정한 생태 복지, 녹색 복지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분야로 조경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경은 그 발생에서부터 건축과 달리 사적영역보다는 공적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서 1972년 근대화과정에서 국토개발로 인한 훼손방지과 보전, 복원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된 전문 분야이다. 국민들에게 저탄소녹색성장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고 느끼게 하고, 실천하는 분야이기에 오늘 우리가 복지의 개념과 함께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녹지의 확충은 상대적으로 성장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44만7052㎡에 달하는 녹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도시 녹지공간이 건강과 복지의 기반시설이자 관광



청계천

과 문화의 중요 요인으로 서울이 세계도시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인식에서 공원과 소규모 녹지들을 확충해 가겠다는 포부이다. 이를 위하여 수목원, 가족캠핑장, 마을공동체정원, 체육시설, 둘레길과 성곽길, 옥상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양손을 들어 환영할 정책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서 여러 의미 있는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다. 복권위원회의 복지기금



영국 런던 도크랜드 주거지

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 진행되는 보육원 놀이정원 조성사업인 '감성나누기 프로젝트' 등 기존 협의의 복지와 광의의 복지 개념이 합쳐진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아직까지 계획 간의 고려가 부족한 점적인 계획 혹은 조성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부서간에 국토와 도시 환경의 조성, 복원,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구성요소간, 집행부처간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패러다임이 변화한 21세기에 국토의 보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을 통하여 기존 구축된 공간과 함께 계획되는 구성요소, 그리고 부처 간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 산재해 있는 점적인 요



서울대학교 옥상녹화



런던 도크랜드 업무지구 녹지공간

소를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면적 개념으로 생각하여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계획이 선행되어야 지속가능하며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꾸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과 '아름다운 생활' 그리고 '사회복지'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_alpinet0504@hotmail.com

Information\_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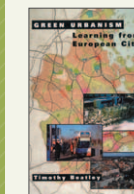
Designing Greenways



Paul Cawood Hellmund & Daniel Somers Smith, *Designing Greenways: Sustainable Landscape for Nature and People* (Washington: Island Press, 2006)

그린웨이 디자인을 경관을 보호하는 중요 방법론으로 보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간 사회와 생태계에 가치를 더하게 위해 어떻게 그린웨이가 작동하는지를 생태학으로 부터 보전 생물학, 수중 생태학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디자인의 풍부한 예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Green Urbanism



Timothy Beatley, *Green Urbanism: Learning from European Cities* (Washington: Island Press, 2000)

비트리의 그린 어바니즘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강화하고 있는 생물물리학적 환경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노력에 관하여 평가하고 이야기 한다. 저자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접근으로 전세계적 환경 위기와 이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많은 유럽도시들의 지속 가능한 정책,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미국 도시들을 위한 유익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Green Infrastructure



Mark A. Benedict & Edward T. McMahon, *Green Infrastructure: Linking Landscapes and Communities* (Washington: Island Press, 2006)

계획가, 디자이너, 조경가, 그리고 시민 운동가를 위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의 광범위한 입문서이다. 저자인 베네딕트와 맥마혼은 상세한 예제와 함께,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이 광의의 사고와 통합된 실행계획 그리고 자연적이고 복원된 국토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린웨이와 녹지 체계의 중요성을 위한 역사적 기술부터 어떻게 디자인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까지 보전지향적 인 토지 이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이해하는데 가치있는 자료이다.

Nature-Friendly Communities



Christopher Duerksen & Cara Snyder, *Nature-Friendly Communities: Habitat Protection and Land Use Planning* (Washington: Island Press, 2005)

자연 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미국 내 지역 사회의 성공적인 자연 친화적 접근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오픈 스페이스, 정치적 현실 등 중요한 이슈를 다루며 저자는 가장 효과적인 단계로 지역사회가 자연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보호의 노력, 최고의 커뮤니티 사례에 관한 정보, 지역 사회의 생물 다양성 보호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 광범위한 이익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Information\_Site

Green Infrastructure

www.greeninfrastructur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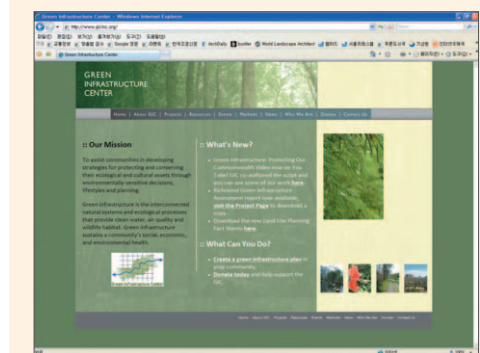
1999년에 미국 보전기금에 의해서 설립된 Conservation Fund's Green Infrastructure Leadership Program의 홈페이지이다. 커뮤니티와 협력단체가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역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Green Infrastructure Center

www.gicinc.org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센터는 지방정부, 지역사회, 지역계획 단체 그리고 개발자가 관련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보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지역사회가 자연자산을 보호하고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제분석, 지도제작, 토지이용계획 등 여러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

